

## 2. 인문사회계열 논술고사 문항 2

【문제】 (800~1,000자)

제시문 [가]의 A국이 취한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나]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고, [다]와 [라]를 참고해 A국의 사회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시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 [바]의 입장을 반영하여 각각 추론하시오.

[가] A국은 1990년대 초 “쌀은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라며 농업 투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A국은 2000년대에 들어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 되었다.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여 국내 쌀 가격이 2배나 올랐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쌀을 구하려고 배급소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쌀 부족 현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재구성

[나] ‘산중 높은 도끼질, 야지 높은 팽이질’이라는 속담이 있다. 산에 사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나무 베는 일을 많이 할 것이고, 들에 사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밭을 가는 일을 많이 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숙련도와 기술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은 들에 사는 사람보다 땀감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게 되고, 들에 사는 사람은 산에 사는 사람보다 곡식과 채소를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게 된다.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다] 1920년대 중국의 내전 중에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가던 한 장수가 큰 강을 만나게 되었다. 장수는 참모에게 강의 평균 수심이 얼마냐고 물었다. 참모는 평균 수심이 1.4미터라고 대답했다. 답변을 들은 장수는 평균 수심이 1.4미터이고 병사들의 평균 키가 1.65미터이므로 걸어서 행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진격을 명했다. 그런데 이 강은 강 가운데를 비롯해 여러 곳의 수심이 병사들의 평균 키보다 깊었다. 이로 인해 물에 빠져 죽는 병사들이 생겨났으며, 특히 평균 키보다 작은 키의 병사들의 희생이 컸다.

-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라] 인간은 본성상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가지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과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이 두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판단과 행위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에 따라 좌우된다. (...) 공동체의 이익이란 도덕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에 속한다. 공동체란 그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한 가공일 뿐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재구성

[마]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란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해요. 1970년대 초반부터 여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어요. 경남 진주시는 2015년에 ‘무장애 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 내 시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어요. 횡단 보도에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도입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문턱 없애기’ 운동을 추진하고

---

있어요.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재구성

[바] 정부가 몇 개의 낡은 병에 지폐를 채워 폐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고 탄갱을 지면까지 쓰레기로 채운 후, 개인 기업으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한다면, 실업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 파급 효과로 한 사회의 실질 소득과 그 자본의 부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